



ROOT IMPACT

Everyone Can Drive Real Change

루트임팩트

2013년 연례보고서

# ROOT IMPACT 2013 ANNUAL REPORT

루트임팩트  
2013년 연례보고서

# Contents Table \_목차

---

인사말 ..... 2

## 루트임팩트 소개

비전/미션/로고 ..... 6  
지난 발자취 ..... 8

## 루트임팩트 2013

한 눈에 보는 2013 성과 ..... 12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자 ..... 14  
사회혁신가의 동반자 ..... 22  
나눔문화 확산 ..... 26

루트임팩트의 내일 ..... 28

루트임팩트 사람들 ..... 36

루트임팩트 한 해 살림 ..... 41

감사의 글 ..... 42

# Chairman's Message<sup>•</sup>



루트임팩트 이사장 예종석

안녕하십니까. 루트임팩트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첫 1년을 먼 길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니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도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비영리 분야에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 하는 저희들에게 지난 1년은 강인한 체력을 기르면서 항로도 모색하는 대단히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회혁신 생태계의 조성자이자 사회혁신가의 동반자 역할을 해나가려 합니다.

지난해 첫 사업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사회공헌 중장기 전략수립을 자문하였고, 그 첫 번째 성과물인 방과 후 프로그램 <소녀, 달리다>가 올해 7월에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올해 1월에는 사회혁신가들이 모여 일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허브서울을 오픈 하였습니다. 2월에는 론펠러자선자문단의 대표를 모시고 자선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하였습니다.

또 소셜벤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소셜벤처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는 론펠러자선자문단에 국제자선가펠로우를 파견하였고 7월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되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 MODU에 대한 자문과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필란트로피 로드맵 시리즈 5권도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듯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루트임팩트에 대한 후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서두르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서투른 점이 많고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 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루트임팩트 최고경영자(CEO) 정경선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돋고 배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 루트임팩트는 이러한 모습의 사회를 꿈꾸며 탄생한 조직입니다.

2012년 7월 창립 이후 지금까지 루트임팩트는 국내외 자선사업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진정성이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왔습니다. 또한 비영리 부문 종사자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루트임팩트가 품은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세상과의 타협을 기부하고 맨몸으로 ‘선한 일’에 뛰어든 이들을 돋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머나먼 여정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루트임팩트는 지난 시간 동안 깨닫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루트임팩트의 미션과 가능성에 공감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사회혁신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청년 사회혁신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꿈을 공유하는 사회혁신가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우연히 얻어지는 뜻밖의 행운, 이른바 ‘세렌디피티’가 피어나는 혁신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의 모습입니다. 루트임팩트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가시밭길을 가고자 합니다. 루트임팩트에게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가 가는 길에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루트임팩트 소개



# 루트 임팩트는

루트임팩트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8명의 청년들이 '선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미션을 가슴에 품고 의기투합해 2012년 7월 19일 루트임팩트를 출범시켰습니다.

루트임팩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 '사람'에 주목하였습니다. 사람을 지원하고 길러내는 것이 루트임팩트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의 근본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트임팩트라는 사명에는 '소셜섹터에서 깊은 뿌리와 같이 기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겠다 (root of impact)'는 포부와 '소셜섹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root for impact)'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 비전과 미션



### VISION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



### MISSION

선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로고



### • 사람을 잇다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이미지는 손을 서로 잡고 있는 세 명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양쪽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운데에 위치한 초록색 사람은 루트임팩트를 상징합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며 세 명이 함께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루트임팩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 루트임팩트의 지난 발자취

① 루트임팩트 법인 설립

② 현대해상화재보험 사회공헌  
자문 시작

7월

2012 2013

① 허브서울 오픈



1월

① 아소카 한국지부 출범  
-기금 모금 및 기념행사 지원



3월

① 코리안리 사회공헌사업  
자문 시작

9월

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출범

② ANIS 2013 (Asia NGO  
Innovation Summit) 참가



③ 제4회 소셜벤처포럼 <여성>  
개최

10월

① 아산서원 동문 프로그램  
<총동문회> 개최



12월

2월

① <록펠러, 행동하는 아이디어를  
만들다(프로젝트5)> 공동 개최



② 제1회 소셜벤처포럼  
<지역, 커뮤니티> 개최



4월

① 록펠러자선자문단 펠로우십  
파견



② 사회적 기업 MODU 자문 시작

③ 제2회 소셜벤처포럼 <먹거리>  
개최

7월

①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

② 현대해상화재보험 사회공헌  
프로그램 <소녀, 달리다> 시작



③ 제3회 소셜벤처포럼 <디자인>  
개최

11월

① 아산서원 동문 프로그램  
<아산서원 인문학 로드쇼> 및  
<청소년 인문학 교실> 시작



② 현대해상화재보험 사회공헌  
프로그램 <소녀, 달리다  
제1회 달리기 축제> 개최





# 루트임팩트

---

# 2013

##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자

사회혁신 생태계가 커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 -사회혁신가의 동반자

기업 사회공헌부문 및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 -나눔문화 확산

소셜섹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 한 눈에 보는 2013 성과



##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자

사회혁신 생태계가  
커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 사회혁신가의 동반자

기업 사회공헌부문 및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 나눔문화 확산

소셜섹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 허브서울

194명의 회원들이  
코워킹 스페이스  
허브서울에서 만나  
각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누적  
회원 수



### 현대해상 <소녀, 달리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총 25개 학교,  
759명의 소녀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학교 수



참여  
여학생 수



### 파트너십

공동사업을 통해  
국내외 10개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소셜벤처포럼

4번의 소셜벤처포럼  
진행을 통해 200명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교류했습니다.

소셜벤처포럼  
횟수



x4

소셜벤처포럼  
참가자 수



x200

### 사회적 기업 MODU

청소년 진로잡지 MODU의  
중장기 전략 수립  
작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료 구독률



2012.10



2013.10

x6

구독수익



2012.10



2013.10

x10

### 소셜네트워크(SNS)

좋은 컨텐츠 발굴로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소셜섹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루트임팩트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 허브서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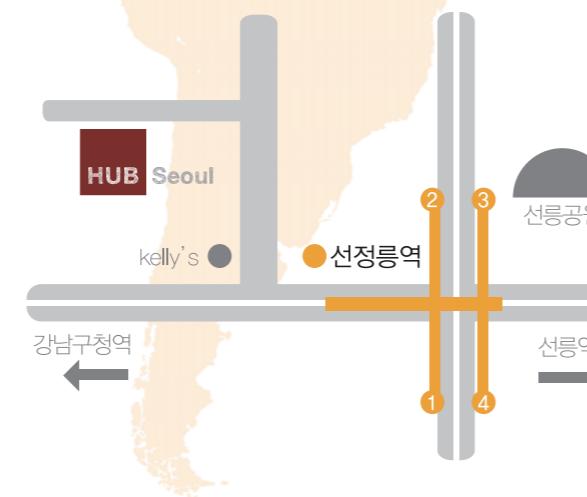
##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가의 성장 커뮤니티

### 허브서울, 서울 상륙

'더 허브' The Hub 는 사회혁신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협업과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고안된 공간으로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암스테르담, 밀라노, 마드리드, 헬싱키, 상파울루, 멜버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30여개 도시에서 더 허브가 운영 중입니다.

'허브서울'은 임팩트 비즈니스 전문 연구기관인 임팩트스퀘어가 2010년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국내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루트임팩트와 임팩트스퀘어 및 성공한 소셜벤처로 평가 받는 딜라이트 보청기의 김정현·김정현 공동창업자, 소셜디자인그룹 엔스파이어가 더 허브의 공식 서울 지점 오픈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후 루트임팩트와 임팩트스퀘어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허브서울을 설립하고, 정경선 루트임팩트 CEO와 박동천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허브서울의 공동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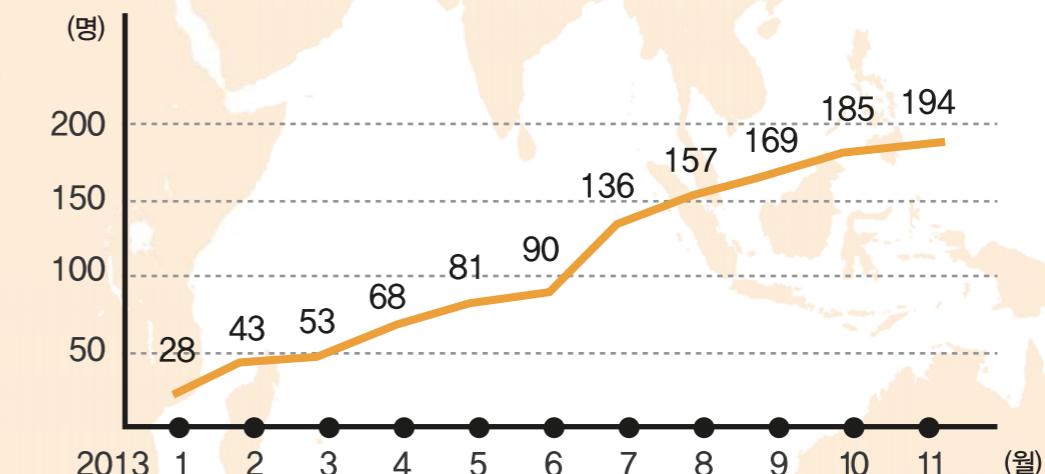
이 같은 노력으로 허브서울은 2013년 1월 14일 베타오픈을 거쳐 2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프리랜서나 사무실이 없는 벤처기업인들을 위한 공유 공간(Co-working space)으로 밤에는 지식과 영감을 교류하는 사회혁신가들의 이벤트 공간으로 허브서울은 기능하고 있습니다.



① 허브서울 회원들 사이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티타임  
② 다양한 주제의 강연 및 워크샵 진행  
③ ④ 공유업무공간 허브서울에서 주간 업무를 진행중인 멤버들

1 2 3 4

### 월별 누적 회원 수 추이



허브서울은 빠른 속도로 사업이 안착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KT와 'KT+HUB 스콜라십'을 체결했고, 7월에는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팝업 허브'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허브서울의 누적 회원 수는 19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소셜벤처포럼 개최

## 소셜벤처 생태계의 건강한 네트워킹 장

### 사회적 경제의 지평을 넓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소셜섹터는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800여 곳에 달합니다.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과 예비 창업자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생태계 규모가 확대되는 데 반해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은 부족했습니다.

루트임팩트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꾸려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식공유 플랫폼 위즈돔과 함께 소셜벤처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소셜벤처포럼은 특정 사회문제나 주제를 하나의 테마로 잡고,

이에 대한 해외 사례분석과 네트워킹,

국내 소셜벤처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2월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2013년 한 해 동안

〈지역, 커뮤니티〉, 〈먹거리〉, 〈디자인〉, 〈여성〉 등 네 가지 테마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분야 전문 매거진 베네핏과 임팩트스퀘어의

해외 사례 분석이 매 회 함께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셜벤처포럼을 다녀간 참가자들은 200여 명에 이릅니다.



① 소셜벤처포럼의 기조 강연을 펼치고 있는 베네핏 매거진 조재호 대표

② 포럼 마지막 순서로 항상 마련되어 있는 네트워킹 기회

③ 포럼 참가자들과 토론 중인 불가능공장 박세상 대표

1

2

3

“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분들의 사업 이야기와 함께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참 와닿았습니다.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반찬들을 골고루 맛보고 온 기분이랄까요.  
이미 사회에서 실전을 경험 중이신 다양한 기업의 대표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 김형기 (직장인, 25세)

### 소셜벤처포럼 참여 업체 현황

횟수	시기	주제	참여 소셜벤처
1회	13년 2월	지역, 커뮤니티	노원구 아파트 협동조합, 불가능공장, Playplanet
2회	4월	먹거리	오요리, Urban Bees Seoul, 파절이
3회	7월	디자인	에코준, 소셜크리에이티브, 바이맘
4회	10월	여성	맘트리, 오방놀이터,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지원

리더십, 경영, 혁신 능력을 갖춘  
차세대 비영리단체 리더 육성

루트임팩트는 비영리 조직의 리더가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세부 프로그램 기획을  
자문함으로써 비영리 부문의 토양을 단단히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 비영리 부문의 근본 변화를 이끌다

비영리 조직을 전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리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 강의가 많은데다 교육 내용도  
천편일률적이고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아산나눔재단과 루트임팩트가  
함께 기획하였으며 향후 연간 60여 명의 비영리 부문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3년 10월에 30명 규모의 1기 프로그램이 발족되었고,  
6개월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성 획득이 필요한 중간관리자급이 1차 교육대상이지만  
교육의 영향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소속 단체와 비영리 섹터에까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 \*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범 현대가에서 5,000억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창업 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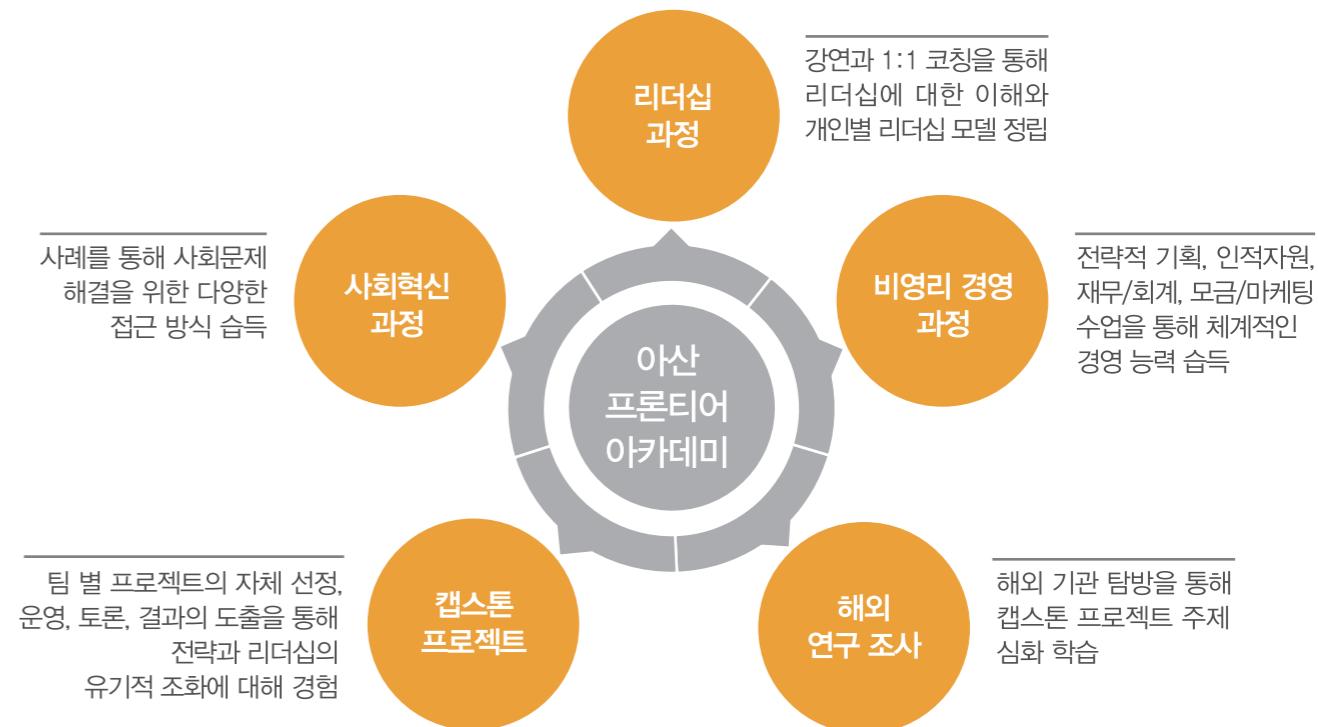
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제 1기 입학식

② 리더십 과정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강생들

1

2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 과정 세부 구성



# 아산서원 동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아산서원 졸업생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문 프로그램

루트임팩트는 아산서원 졸업생들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① ② "죽음"을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아산서원 인문학 로드쇼> 제 1회 강연  
③ 아산서원 제 3기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 초청 강연  
④ 아산서원 제 3기 문화기행(울산, 경주)에 참석한 학생들

1  
2  
3  
4

## 아산서원 동문 프로그램 세부 구성

### 미래 변화를 이끌 주인공, 대학생에 주목하다

아산서원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대상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인문학 교육, 소규모 토론식 수업, 아산학사에서의 공동체 생활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동서고금의 문명을 학습하고 향후 개인, 국가,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루트임팩트는 대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 아래 아산서원 졸업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아산서원 청소년 인문학 교실>과 <아산서원 인문학 로드쇼>를 기획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학습을 위한 종 동문행사와 소모임 활동도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혁신가들의 협업 공간인 허브서울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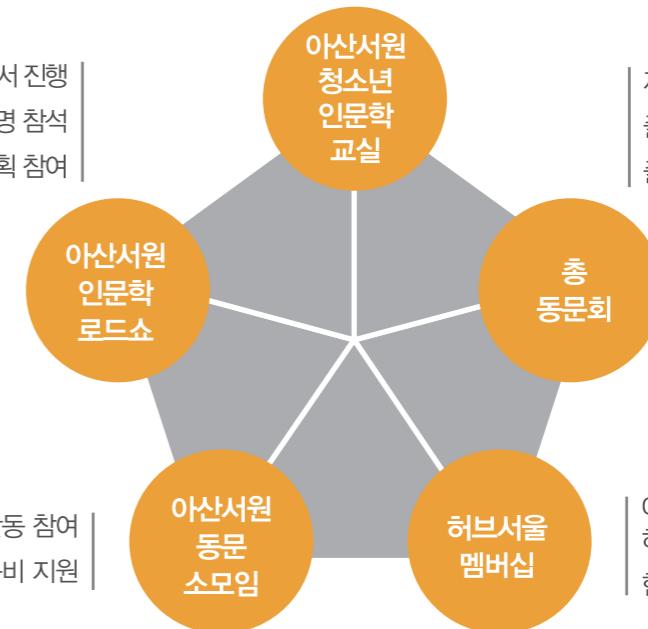
그들이 사회적 생태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1318 해피존 새움터 지역아동센터 MOU 체결  
중고생 13명 대상 7주 교육 봉사 진행  
졸업생 6명 교육봉사 참여  
인생의 7가지 인문학적 질문 교재 개발

제1회 행사 센터마크 호텔에서 진행  
졸업생 75명 참석  
졸업생 9명 행사기획 참여

제1회 강연 "죽음" 연세대에서 진행  
대학생 250여명 참석  
졸업생 7명 강연기획 참여

졸업생 54명 소모임 활동 참여  
3개 소모임 활동비 지원



\*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어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와 21세기 우리나라의 외교, 환경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싱크탱크이다.

아산서원 졸업생 대상  
허브서울 멤버십 전원 지원  
현재까지 졸업생 75회 이용

# 현대해상 사회공헌 자문 및 '소녀, 달리다' 기획과 운영

대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공헌 전략 수립

루트임팩트는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대해상만의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2년 사회공헌팀을 신설한 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 판단하고 루트임팩트와 함께 향후 사회공헌 활동의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루트임팩트는 현대해상의 주 고객층인 30~40대의 관심사가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소녀, 달리다>를 기획했습니다.

2013년 여름방학 수업을 시작으로 9월부터 2학기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개 학교, 759명의 여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소녀, 달리다>에서 개발한 신체 발달, 인성 발달 지표를 프로그램 전후에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체력요인과 인성요인들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에도 대상 학교와 학생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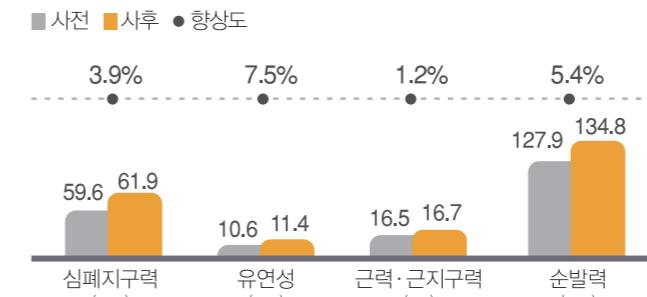
① '소녀, 달리다' 프로그램을 통해 달리기의 기본을 다지고 있는 여학생들  
②③ <소녀, 달리다 제 1회 달리기 축제>에 참가한 여학생들

1 2 3

## 2013년 여름방학 수업 참여 학생의 프로그램 전/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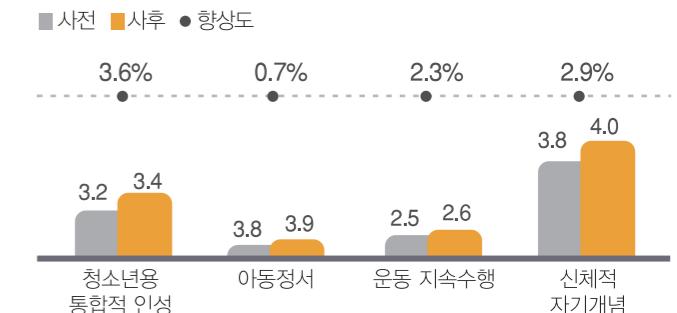
(2013년 여름방학 수업에 참여한 209명의 학생 중 측정에 참여한 114명 기준)

〈신체발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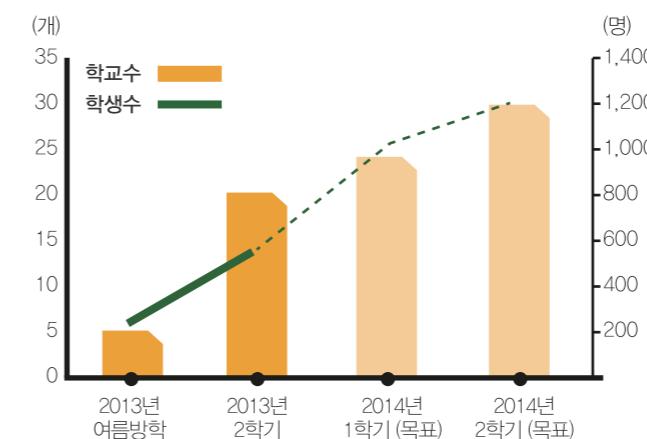


\* PEI: 일정한 운동을 수행토록 한 후 심박수의 회복양상을 분석

〈인성발달지표〉



## 참여 학교 및 학생 수



## 참여자 의견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는 힘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 같아요.  
—최다은 학생

애들한테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꿈을 키워준 기회가 된 거 같아요.  
—김수희 학부모

아이들이 나 이외에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 하는 생활에 대해서 더 공감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신초등학교 어지순 선생님

# 청소년 진로 잡지를 발간하는 사회적 기업 MODU 자문

## 소셜벤처의 중장기 전략 수립

루트임팩트는 MODU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경영자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의 장기적인 미션을 재정의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분석 및 그에 따른 실행지원을 진행했습니다.



① MODU 매거진 주최 <꿈 캠페인>에 참가하여 자신의 장래 희망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과 멘토

1

## 꿈의 길잡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성큼 다가가다

MODU는 치열한 입시 환경의 벽에 부딪혀 미래에 대해

진지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2011년 창간된 진로 잡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꿈과 룰모델을 제시하고자 무료로 배포해왔으나

점차 발행비용의 부담이 심화됐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사업 비전과 미션에 대한

조직 내부의 합의마저 흔들리는 등 내홍을 겪었습니다.

루트임팩트는 먼저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10대를 위한 1등 잡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인 꿈과 룰모델을 심어주는 잡지'로 명확히 재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잡지 콘텐츠를 개편하고, 관련 이니셔티브로서

'청소년 대상 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잡지 배포가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진로교사들에게

수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료 구독률 증가 및 수익률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기존의 1,500개교에서 5,000여개 전국 중고등학교로 배포처를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도입하는 등

잡지 전달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

벤처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사업 초기 2~3년 차라고 합니다. 보통 이 기간에 지금 고갈, 조직원 이탈 등 위기가 발생하여 결국 97%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저희 MODU 또한 모든 위기들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창업 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 루트임팩트를 만났습니다. 반년이 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MODU는 미션, 사람,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걸쳐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MODU 권태훈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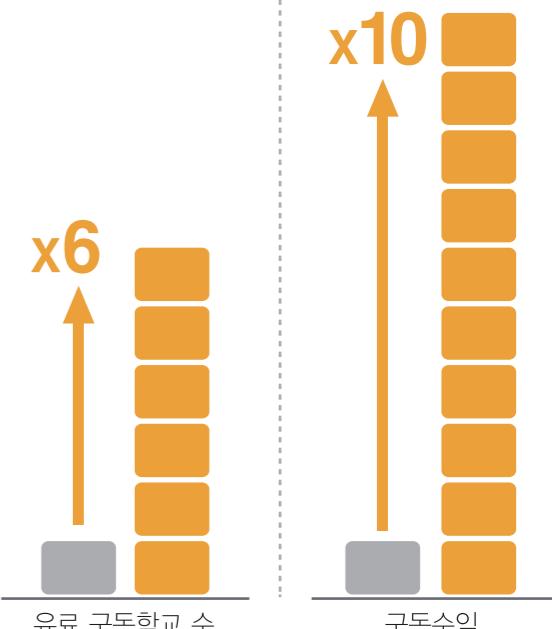
”

### 유료 구독률 증가

2013.9 ~11  
2012.9 ~11

### 구독수익 증가

2013.9 ~11  
2012.9 ~11



# 비영리 부문의 세계적 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 1 록펠러자선자문단과 파트너십 체결

개인 기부와 자선사업은 사회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국내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루트임팩트는 국내 자선문화 확산을 위해 전략 자선 자문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기관인 록펠러자선자문단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RPA](#) 과 2012년 12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013년 2월 4일 RPA의 최고경영자(CEO) 멜리사 버만과 록펠러 가문 5대손이자 RPA 이사장을 맡고 있는 웨니 오닐을 초청해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 본사에서 250명 규모의 워크숍 <록펠러, 행동하는 아이디어를 만들다 (프로젝트5)>를 개최하였습니다.



뉴욕 소재 록펠러자선자문단 본부에서 루트임팩트와의 파트너십 체결 후

## 2 아쇼카 한국지부 설립 지원

루트임팩트는 세계 최대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조직인 아쇼카 [Ashoka](#) 가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루트임팩트의 지원에 힘입어 아쇼카는 현대백화점과 현대해상으로부터 초기 자금 30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 3월 5일 한국 지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루트임팩트와 아쇼카는 '착한 리더를 양성한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한국의 시민 섹터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워싱턴 소재 아쇼카 본사 방문

\* 록펠러자선자문단(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은 1891년에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뉴욕에 본부를 뒀다. 연 2억 달러의 기부금을 자문, 관리하고 있다.

\* 아쇼카는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에 의해 1981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현재 73개 국가에서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된 2,145명의 체인지메이커들이 인권, 경제 개발, 시민 참여, 교육,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쇼카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 3 Asia NGO Innovation Summit (ANIS) 참가

루트임팩트는 2013년 10월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회의 ANIS(Asia NGO Innovation Summit)에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ANIS에서 루트임팩트는 <사회적 기업가 모의투자 세션>을 담당. 초기 단계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비즈니스모델을 재점검하고 잠재적 투자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아큐멘 [Acumen Fund](#), 오미디야르네트워크 [Omidyar Network](#), 록펠러재단 [Rockefeller Foundation](#) 등 세계 유수의 임팩트 투자자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 우수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멘토링을 실시 하였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ANIS 2013에서 <사회적기업가 모의투자 세션> 최종 우승자와 함께



\* ANIS(Asia NGO Innovation Summit)는 희망제작소, 록펠러재단, 인텔아시아의 주최로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 최초의 사회혁신 네트워크 국제회의이다. 매년 아시아 20여개국에서 200여명의 사회혁신 리더들이 모여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 루트임팩트의 내일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 노력한다.  
그렇기에 모든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 조지 버나드 쇼

# Theory of Change

##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의 조력자

루트임팩트는 모든 이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루트임팩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의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혁신가들과 그들을 돋는 협력자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낼 수많은 변화들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에 동참토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루트임팩트는 중간지원기관으로서 그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업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루트임팩트는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1. 잠재적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육성

사회혁신 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오해가 야기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잠재적인 사회혁신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회혁신가들과 협력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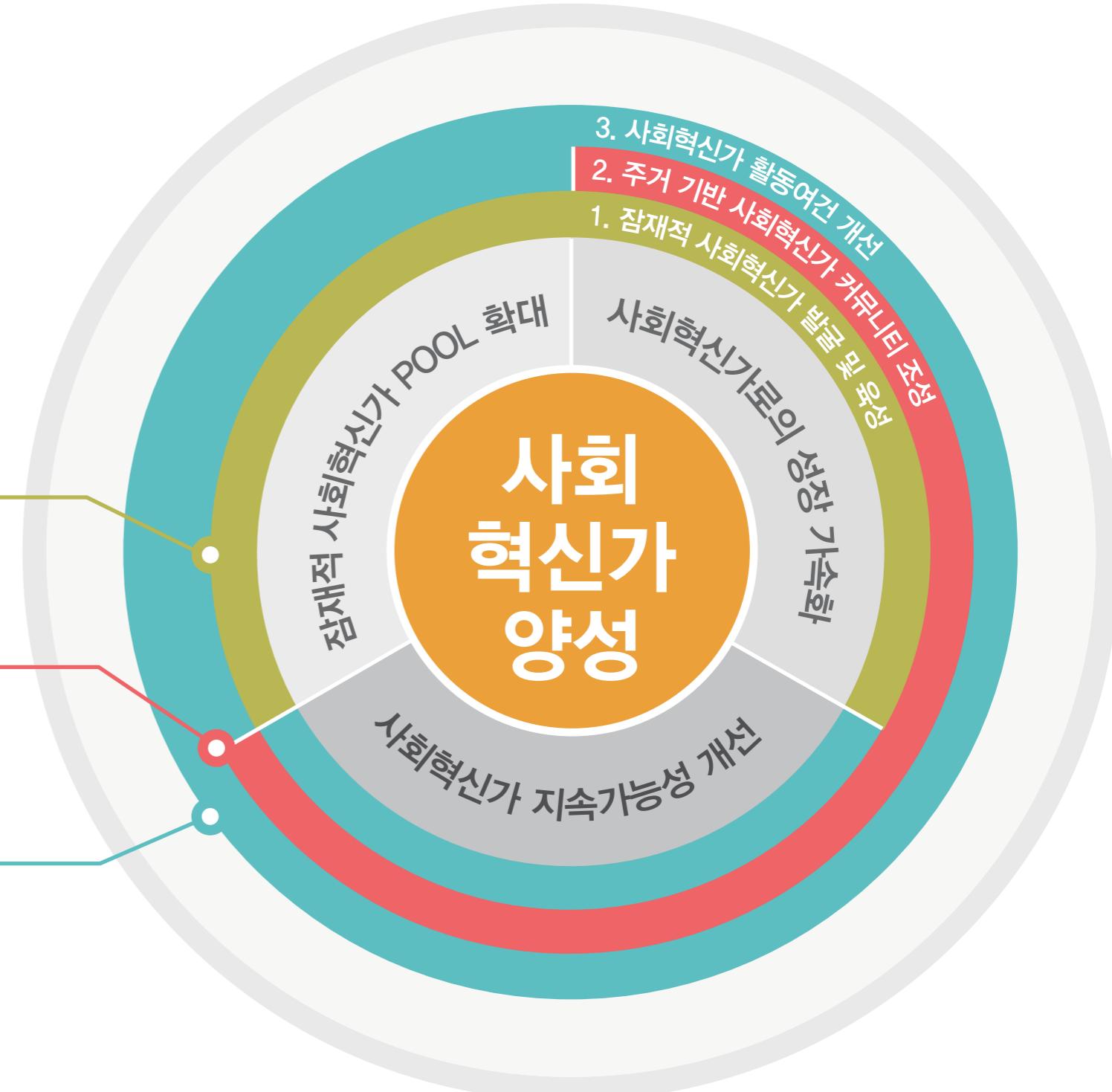
### 2. 주거 기반 사회혁신가 커뮤니티 조성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혁신가들이  
서로 돋고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로 배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업무 환경을 조성.  
사회혁신가들과 협력자들이 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 사회혁신가 활동여건 개선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혁신가들의 사회적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회혁신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선사업가 및 기업 사회공헌부서 등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사회혁신을 접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Theory of Change  
Theory of Change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 고유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 잠재적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육성

## 지구인 프로젝트

세상에 **지**지 않는  
세상을 **구**하는  
세상에게 **인**정 받는  
청년들의 프로젝트



### 일반인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단계

### 캠페인

사회혁신 인식개선 활동

### 조행자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

**유망주**  
관심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기 시작한 단계

###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려는 청년들을  
아이디어 도출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까지  
지원, 교육하는 프로그램

한국의 잠재적 사회혁신가들은 사회의 차가운 선입견과 실질적인 지원 부재라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도 이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루트임팩트는 잠재적 사회혁신가에 대한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능력과 사회변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인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지구인 프로젝트는 사회혁신에 뜻을 두고 있는 청년 '지구인'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살아있는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셜섹터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딴짓 장학금(가제), 프로토타입 지원(가제) 등의 장학 사업 등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이 갈등의 기로에서 사회적 기업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길잡이

노력이 어느 정도 성취로 이어져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단계



### 선구자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에 있어  
입지전적인 성취를 이룩한 단계



GLOBAL  
SHAPERS  
COMMUNITY

지구인 프로젝트는 루트임팩트와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20대 리더들의 커뮤니티인 글로벌세이퍼스(GSC)가 공동주최하며, 허브서울이 파트너사로 참여합니다.

# 주거 기반 사회혁신가 커뮤니티 조성

“ 아무래도 돈이 안되니 버겁네. 이제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커리어도 위태롭고... 여기서 그만 두어야 하나?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일을 같이 해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찾기 어렵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잠재적 사회혁신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고 사회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금자리 역할을 할 커뮤니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루트임팩트는 사회변화에 대한 열정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20~30대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끈끈하고 활발한 사회혁신가 커뮤니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루트임팩트 사람들

사무국

CEO  
COO  
Manager  
Volunteer  
Intern

정경선  
허재형  
윤서영, 최은수, 정다현, 최지훈, 김미라, 정윤혜, 박연경, 최병주, 강보라  
유현정  
허지웅, 이희진

\*이 사진은 전명진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 루트임팩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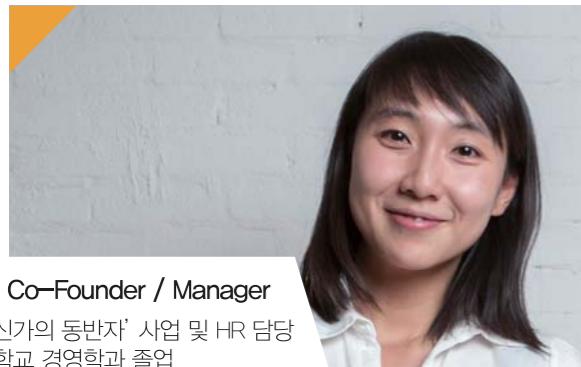
정경선 Founder / CEO

사업 아젠다 제시 및 대외협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허재형 Co-Founder / COO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윤서영 Co-Founder / Manager

'사회혁신가의 동반자' 사업 및 HR 담당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최은수 Co-Founder / Manager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자' 사업  
및 IT 담당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재학



정다현 Co-Founder / Manager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자' 사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최지훈 Manager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자' 사업  
및 HCD 담당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김미라 Manager

'사회혁신가의 동반자 사업'  
및 Finance 담당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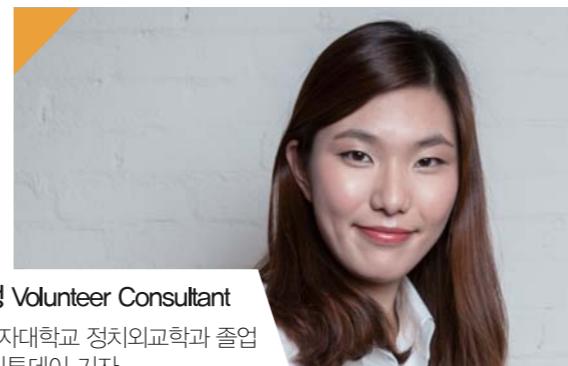
강보라 Manager

'사회혁신가의 동반자' 사업 및  
대외협력 담당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신문방송 졸업



정윤혜 Manager

해외 파트너십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유현정 Volunteer Consultant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前 머니투데이 기자



이희진 Intern

숙명여대 경영학과/국제기구학과 수료  
前 GS SHOP 기업문화팀 인턴



박연경 Manager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자' 사업 및  
대외협력 담당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최병주 Manager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자' 사업 및  
총무 담당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허지용 Intern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환경생태공학과 수료  
前 UNWTO (세계관광기구) Collaborator

\*이 사진은 전명진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 이사장

예종석 現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현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 이사

강철희	現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혁일	現 해피빈재단 대표
김운호	現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윤정숙	前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류영재	現 서스틴베스트 대표		

## 감사

이제홍 現 (재)한국가이드스타 자문위원장

## 자문단

방대욱	現 다음세대재단 상임이사
허인정	現 더나은미래 대표

# 협력 파트너



# 루트임팩트 한 해 살림

재무결산 현황  
(2013.01–2013.10 기준)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회비	5,000,000	운영경비	사무실비 49,799,052
기부금	671,957,000		인력비 35,951,414
이자	1,834,157		기타 18,664,145
사업	조성자 76,836,640		운영경비 소계 104,414,611
	동반자 290,000,000		조성자 183,074,953
	나눔문화확산 9,000,000		동반자 374,275,117
	사업수익 소계 375,836,640		나눔문화 확산 152,589,108
기타 수익	23,854,400		기타 신사업 33,316,580
수입 계	1,078,482,197		사업비 소계 743,255,758
전년이월액	97,991,693		지출 계 847,670,369
			-
		기본재산편입액	328,803,521
		차기이월액	1,176,473,890
합계	1,176,473,890		1,176,473,890

# 감사의 글

아직은 미숙하고 배울 것들이 한참 남은 단체이지만,  
루트임팩트는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뛰어난 역량을 지닌 설립 멤버들과  
저희에게 아낌없이 애정과 조언을 베풀어주시는  
예종석 이사장님, 강철희 이사님, 김운호 이사님,  
권혁일 이사님, 류영재 이사님, 윤정숙 이사님과  
방대욱 자문위원님, 허인정 자문위원님,  
그리고 록펠러자선자문단, 아쇼카 코리아,  
임팩트스퀘어와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THANK YOU

강유리 님 김보라 님 김은선 님 김인애 님  
김정관 님 박 영 님 손은우 님 송민석 님  
송혜승 님 신동근 님 이수민 님 이수현 님  
이유나 님 이재훈 님 전완중 님 전명진 님  
정서현 님 조미린 님 조아라 님 한상엽 님  
허태현 님 베네핏 매거진 사회공헌정보센터  
아산 나눔 재단 아산 정책 연구원  
(주)와이즈웰니스 얼스 위즈돔 이롭게  
임팩트스퀘어 커뮤니케이션우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허브서울 현대해상  
A S H O K A M O D U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 SLOWALK



**ROOT IMPACT**

Everyone Can Drive Real Change

**루트임팩트**

2013년 연례보고서

**기획**

루트임팩트

**편집**

정다현 매니저

**디자인**

(주)커뮤니케이션우디

**발행**

루트임팩트

rootimpact@rootimpact.or.kr

<http://rootimpact.or.kr>

<http://blog.naver.com/riblog>

070-4652-378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5-24 우리빌딩 3층

연례보고서에 수록된 프로젝트 자료 및 컨텐츠의 저작권은 루트임팩트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ROOT IMPACT All rights reserved.